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하나기술 (299030)

수주잔고 회복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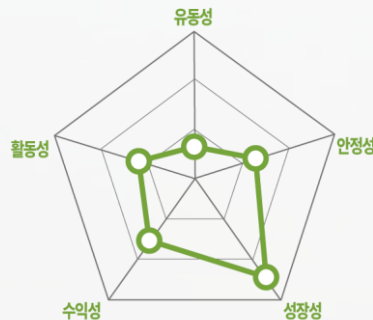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하나기술은 이차전지 제조 공정 중 조립, 화성 공정에 쓰이는 다양한 장비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2000년 기업 설립 이후 초반기 각종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장비를 삼성전자, 삼성SDI 등 국내 대기업에 공급하며 성장. 2020년 11월 코스닥에 상장
- 투자포인트는 1) 해외 고객 중심으로 수주 회복 및 매출 성장 기대, 2) 연결 자회사(하나셀트론) 성장 기대
- 하나기술은 2026F PER 22.5배로 거래 중. 향후 주가 회복의 핵심 요소는 확대된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과 수익성 개선. 1H26말 수주잔고는 4,82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인도 A사향 1단계 수주분 약 800억 원의 매출 인식이 4Q26부터 시작될 전망.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은 2026년 20억 원으로 흑자전환한 뒤 2027년 19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수주잔고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확인되며 주가의 점진적 회복 기대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2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하나기술 (29903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지은 jekim0216@kirs.or.kr

KOSDAQ

기술하드웨어와장비

하나기술은 이차전지 공정용 장비 기업

하나기술은 2000년 설립된 이차전지 조립, 화성 공정용 장비 개발/공급 전문기업.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이차전지 장비 99.1%, 기타 0.1%

글로벌 배터리 장비 시장 안정적 성장 중. 화성검사 장비 성장률은 전체 상회 기대

글로벌 배터리 제조장비 시장은 전기차·ESS(에너지저장시스템)용 생산시설 투자와 생산 효율 개선 수요에 따라 2026년 180.2억 달러에서 2031년 234.3억 달러로 연평균 5.4% 성장 전망. 이 가운데 화성·검사 장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12.5% 성장, 전체 장비 시장보다 고성장 기대. 각형 생산기반 확대와 중국의 장비 수출통제로 비중국 조립·화성 장비 업체들의 공급 기회 확대 기대됨. 국내 장비 업체 실적은 해외 고객과 각형·ESS 확보 여부/정도에 따라 실적이 차별화되는 중

1H26 실적 보릿고개 이후 실적 개선 가능성 주목

1H26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36억 원, -100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실적 대비 매출액은 180억 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자는 54억 원 확대. 4Q24~1Q25 기간의 저조한 수주잔고 상황이 매출로 인식되는 기간이었기 때문. 그러나 수주잔고 현황 개선에 주목. 인도 A사향 대형 터키 수주 등으로 1H26말 현재 수주잔고는 4,825억 원 규모인 만큼, 2H26부터 실적 회복 기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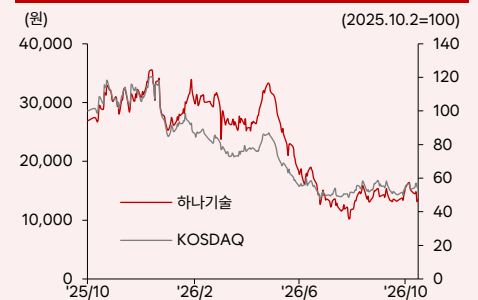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억원)	1,199	942	938	1,259	1,790
YoY(%)	5.3	-21.5	-0.4	34.2	42.1
영업이익(억원)	-63	-264	-0	20	190
OP 마진(%)	-5.3	-28.0	-0.0	1.6	10.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8	-155	-58	52	97
EPS(원)	-487	-1,916	-726	653	1,212
YoY(%)	적전	적지	적지	흑전	85.5
PER(배)	N/A	N/A	N/A	22.5	12.1
PSR(배)	4.5	1.5	2.3	0.9	0.7
EV/EBITDA(배)	N/A	N/A	72.4	28.3	7.1
PBR(배)	5.0	1.4	2.1	1.1	1.0
ROE(%)	-4.1	-14.7	-5.9	5.1	8.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10/19)	14,680원
52주 최고가	35,500원
52주 최저가	10,160원
KOSDAQ(10/19)	808.89p
자본금	41억원
시가총액	1,17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8만주
평균거래량(60일)	4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5억원
외국인지분율	15.1%
주요주주	오테봉 외 2인 29.3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8.3	-49.1	-49.4
상대주가	10.8	-26.4	-46.2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EBITDA마진율',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하나기술은 이차전지 조립, 화성 공정용 장비 전문기업

**2000년 설립돼 2020년 코스닥
상장한 이차전지 조립·화성 장비
전문기업**

하나기술은 2000년 ‘하나이엔지’라는 사명으로 現 대표이사인 오태봉 대표이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초반인 2002년 삼성전자와 삼성SDI 협력업체로 빠르게 등록되며 성장했다. 2003년에는 사명을 ‘하나기술’로 변경하고, PDP FRIT/MASK/BATCH 검사기, LCD 검사기/분광기/리뷰기 등 여러 디스플레이 장비를 수주했다. 2004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파우치형 전지 패키징(Packaging) 라인을 처음으로 수주하였다. 이렇듯 하나기술은 기업 설립 초반기 각종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장비를 개발/공급하며 성장했다.

2006~2016년 기간은 하나기술에게 본격적인 성장기라 할 수 있다. 배터리 제조사 삼성SDI와 함께 전해액 고속주입기 공동연구개발을 완료하며 관련 기술 기반을 닦았다. 2007년 원형 전해액 고속주입기를 수주했고, 원형전지 총방전기를 개발했다. 2008년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신규 장비(AMOLED P2 CSG 패턴 검사기, LCD UV노광기)를 수주하기도 했다. 2010년 다양한 이차전지 장비 관련 수주에 성공했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2016년 동사는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이차전지 극판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노칭(Notching)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2017년 동사는 중국 남경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사업 의지를 높였고, 일본 무라타의 협력업체로도 등재되었으며, 무역 협회로부터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삼성SDI 우수협력사, LG화학 우수업체에 잇따라 선정되며 이차전지 장비 산업 내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2020년, 하나기술은 독일 폭스바겐 협력업체로 등록되기도 했고, 11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21년부터는 하나기술의 해외 이차전지 고객향 수주/공급활동이 기존보다 활발해졌다. 2021년 북미 F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2022년 유럽 F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준비했던 제2공장(화성) 가동을 시작했다.

하나기술은 2023년 미국 AABC 전시회를 참가하며 해외 고객 확보 노력을 기울였고, 2024년 The Battery Show(Detroit) 전시회에도 참가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속했다. 여러 노력의 결실로 동사 고객비중은 국내 배터리 3사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해외(프랑스, 대만, 북미) 고객향 비중 상승이 이루어졌다(2025년 기준 수출 비중 69.8%).

2025년 12월 이차전지 조립공정 라인 턴키 계약/공시는 동사에게 매우 의미있는 공급계약이었는데, 1,576억 원이라는 수주 규모도 의미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사가 신규 고객인 인도 A사라는 점이었다. 인도 A사향으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기대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나기술은 2026년 6월 인도 A사향 추가적인 이차전지 조립공정 라인 턴키 공급계약(1,615억 원)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러한 수주활동 증가세로 수주잔고는 증가하여 2026년 반기말 수주잔고는 4,825억 원에 이르렀다(1H26 사업보고서 기준). 1H25말 수주잔고는 2,036억 원, 1Q26말 수주잔고는 3,393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하나기술의 최근 수주잔고 상승은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일 요소라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하나기술은 국내 이차전지 조립, 화성 공정 관련 장비업체로서 다변화된 고객 구조(국내 배터리 3사 및 해외

고객 보유)와 조립/화성 장비 위주로 턴키 장비 개발/공급 라인업을 갖춘 강소기업이다. 수주잔고 확대 추세로 2H26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결 자회사인 하나셀트론을 통해 화성 장비 사업의 성장과 관련 신규 고객의 추가 확보, 신제품 매출 확대 등도 향후 기대된다.

하나기술 연혁

2000~2009	2010~2019	2020~
2000.06 하나이엔지 설립 2002.07 삼성SDI 협력업체 등록 2002.11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2003.03 (주)하나기술 설립 2003.05 PDP FRIT/MASK/BATCH 검사기 수주 2003.07 LCD 검사기/분광기/리뷰기 수주 2004.04 ISO 9001:2000 인증 2004.0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4.08 파우치형 전지 패키징(Packaging) 라인 수주 (이차전지 장비 1호 수주) 2004.08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인증 2004.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05.04 FED 개발용 패설조립기 수주 2005.07 OLED 4세대 MASK 인장기 수주 2006.03 LG-PHILIPS LCD(주) 협력업체 등록 2006.05 원형전지 전해액 주조기 1호 수주 2006.08 전해액 고속주조기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기관: 삼성SDI) 완료 2006.08 에너지저장장치(ESS)용 퓨어셀 스테이션 개발 및 수주 2007.01 화성공정 Hot Press 장비 개발 및 수주 2007.02 원형 전해액 고속주조기 수주 2007.04 원형전지 충방전기 개발 2008.01 LCD UV 노광기 수주 2008.07 AMOLED P2 CSG 패턴 검사기 수주	2010.0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2010.04 이차전지 화성공정 장비 개발 및 수주 (Cell Press M/C) 2010.04 이차전지 조립공정 X-RAY 스토커·교반기, 극판공정 극판세정기 수주 2011.02 용접부 고속 3D 검사시스템 개발 2012.07 이차전지 화성공정 디가상 장비 개발 2014.06 이차전지 정밀용접 장비 개발 2016.08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BYD 협력업체 등록 2016.10 이차전지 극판공정 레이저 노칭 (Notching) 장비 개발 2017.03 중국 남경법인 설립 (Nanjing HANA Trading Co., Ltd) 2017.03 LG전자 협력업체 등록 2017.06 일본 전자생산업체 MURATA 협력업체 등록 2017.12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무역협회) 2018.03 삼성SDI 우수협력사 선정 2018.04 LG화학 우수업체 선정 2018.06 한국산업은행 외 5개 기관투자자 130억원 투자유치 2018.12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무역협회) 2019.12 대용량 팩 충방전기 개발	2020.01 본점 이전(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나무골길2번길 56-7) 2020.02 기술평가 우수기업(2차전지 제조용 자동화기계 최우수 T-3) 인증 2020.03 헝가리 법인 설립 2020.04 세계 최초 반고체 전지 조립화성 라인 Turn-Key 수주 2020.09 폭스바겐 협력업체 등록 2020.11 코스닥 상장 2021.02 SK이노베이션 협력업체 등록(Turn-key 수주) 2021.09 환경공단 협력업체 등록(팩 충방전기 수주) 2021.10 ISO 14001/45001 획득 2021.12 북미 F사 협력업체 등록(Turn-key 수주) 2022.08 유럽 F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022.10 제2공장(화성공장) 가동식 개회 2022.10 배터리 스마트 충방전 시스템 MOU 체결 2022.12 칠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23.03 국내 인터넷배터리 전시회 참가 2023.10 초고속 펄스 충전 시스템 MOU 체결 2023.12 미국 AABC 전시회 참가 2024.08 HNX Smart stacking e+ 장비 론칭 2024.10 The Battery Show(Detroit) 전시회 참가 2024.12 세계 최고속 고속소재링 장비 최초 출하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H26 기준 4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보유

하나기술은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1H26 기준 4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4개사 중 3개사는 해외법인으로, 중국(난징), 헝가리, 인도에서 동사 사업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법인 3사 주요사업은 이차전지 장비중계판매업이다. 3개 해외법인에 대한 동사의 지분율은 100.0%(인도 법인은 99.99%)이다.

국내 종속기업인 하나셀트론의 주요사업은 이차전지 충/방전 장비 및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제조 등이며, 동사의 지분율은 1H26말 기준 65.0%이다. 펄스 포메이션(Pulse Formation, 배터리 충/방전을 빠르게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이차전지 충/방전 장비 사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하나셀트론은 2026년 상반기 중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동사 지분율은 기존 90.0%에서 65%로 희석되었다.

1H26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 원)

구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종속기업	Nanjing HANA Automation Technology Co.,Ltd	1,686	40	194	-	1,532
	Hana Technology Hungary Kft.	6	-	10	-	-5
	(주)하나셀트론	8,392	34	6,999	-	1,427
	HANA-TECH INDIA PRIVATE LIMITED	16	-	-	-	16
관계기업	(주)정도기술	519	221	868	258	-386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1H26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이차전지 장비 99.9%, 기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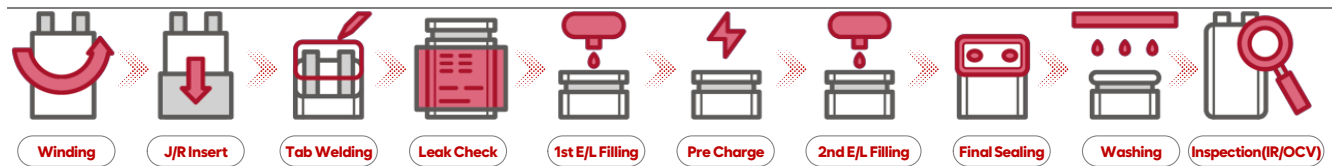
하나기술은 이차전지 조립, 화성 공정용 각종 장비/제품들을 주로 턴키로 개발/공급하고 있다. 1H26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이차전지 장비 99.9%, 기타 0.1%이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이차전지 장비 부문의 약 80% 이상이 조립 장비 제품 비중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동사 주요 제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원통형·각형·파우치형 전 형태의
조립 장비를 공급하는 주력 사업

✓조립 장비

이차전지 제조공정용 조립 장비는 동사의 주력 제품이다. 하나기술은 이차전지 모든 형태 즉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조립 장비 제품을 모두 고객에게 개발/공급하고 있다. 조립 공정은 전공정인 전극 공정에서 제조된 양, 음극재를 전지 용기에 삽입하고 셀(Cell)로 조립하는 공정이다. 세부적인 공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조립 공정(각형 이차전지 기준)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하나기술은 다양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립 공정용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관련 핵심 제품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각형 이차전지 제품 기준).

Electrolyte Filling Machine 제품은 LI-ION EV(전기차) 전지 조립 공정 중 1,2차 전해액 주입 설비이고, Jelly Roll Press Machine 제품은 각형 Jelly Roll에 일정 시간동안 압력 및 열을 가하여 Jelly Roll의 Separator에 도포된 접착층을 녹여 극판과 Separator를 붙이는 설비이다. Tab welding Machine 제품의 경우 Tab의 용접 방식은 1차 용접, 2차용접으로 구분 가능하고 초음파 또는 Laser로 용접 후 Vision으로 검사를 하는 설비이다. 동 제품은 Inline 방식과 Turntable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이다.

조립 공정 핵심 제품



Electrolyte Filling Machine

본 설비는 LI-ION EV 전지조립 공정 중 1,2차 전해액 주입 설비입니다.



Jelly Roll Press Machine

본 설비는 각형 Jelly Roll에 일정 시간동안 압력 및 열을 가하여 Jelly Roll의 Separator에 도포된 접착층을 녹여 극판과 Separator를 붙이는 설비입니다.



Tab welding Machine

Tab의 용접 방식은 1차 용접, 2차용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초음파 또는 Laser로 용접 후 Vision으로 검사를 하는 설비로 Inline 방식과 Turntable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입니다.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화성 장비는 충·방전으로 셀에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며 본사와
하나셀트론이 함께 영위**

✓화성 장비

화성 공정은 조립된 셀(Cell)에 충·방전을 통하여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원형과 각형 전지의 프로세스는 유사하나 파우치형의 경우는 1차 충방전(Formation) 후에 파우치 내에 발생된 가스를 제거하는 디게싱(Degassing) 공정이 추가되고 있다. 하나기술은 화성 장비/제품 사업을 본사에서 진행하는 한편, 2026년부터 연결 종속회사 하나셀트론도 펄스 포메이션 제품 위주로 화성 장비/제품을 사업으로 활발히 영위하고 있다.

화성 공정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화성 공정 관련 동사의 핵심 제품들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Folding&Inspection 제품의 Inspection System은 활성화 공정의 최종 단계에서 ACIR/OCV, Pressure, Cell Size, 무게, 쇼트 등을 측정·검사하는 시스템 제품이다. NG Detector 제품은 충·방전기 및 IR/OCV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터리 셀의 양품/불량품을 판정하는 장비이다. Micro Current 제품의 경우 미세전류를 인가하여 전지(Cell)의 내부 short circuit 유/무를 판정하는 설비이다.

화성 공정 핵심 제품

		
Folding&Inspection Inspection System은 활성화 공정의 최종 단계에서 ACIR/OCV, Pressure, Cell Size, 무게, 쇼트 등을 측정·검사하는 시스템입니다.	NG Detector NG sorter는 충방전기 및 IR/OCV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터리 셀의 양/불을 판정하는 장비입니다.	Micro Current 미세전류를 인가하여 전지(Cell)의 내부 short circuit 유/무를 판정하는 설비입니다.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셀을 모듈팩으로 조립하는 장비와
Cycler-Discharger 등 검사
장비 공급**

✓모듈팩 조립 및 검사 장비

모듈팩 공정은 전기차 배터리, ESS(Energy Storage System)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한 팩(pack)을 만들기 위한 공정으로, 완성된 셀을 일정 단위로 묶어 모듈을 만들고 이후 팩으로 조립하고 검사하는 공정이다.

모듈팩 조립 및 검사 공정 관련 동사 핵심 제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모듈팩 조립 장비를 살펴보면, MODULE Assembly 제품은 배터리 셀(cell)을 외부충격과 열,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배터리 조립체를 만드는 설비이고, PACK Assembly 제품은 배터리 모듈에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냉각시스템 등 각종 제어 및 보호시스템을 장착하여 PACK을 만드는 설비이다.

검사 공정 관련 동사 주력 제품은 3가지이다.

Pack/Module Cycler 제품은 3레벨 전력변환기술의 최적화 설계로 고효율 및 신뢰성이 검증된 장비이다. EV, ESS, E-bike 등 중대형 배터리 성능 테스터 및 진단이 가능하며 병렬 모드를 통해 용량 확장 및 다양한 채널 구성이 용이하다. 특히, 배터리 스마트 진단 시스템(Battery Smart Diagnosis System) 내재화를 통해 BMS와 직접적인 연동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Cycle 테스트가 가능하게끔 한다.

Pack/Module Discharger 제품은 사용 후 배터리 방전을 위한 제품이다. 전력 제어를 통해 고속 방전이 가능하며, 저항방전타입으로 원가절감 및 설치 용이성을 확보한 장비이다. 최적화된 터치스크린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수 배터리 방전을 통합제어 가능하다. 특히, 배터리 스마트 진단 시스템 내재화(Battery Smart Diagnosis System)를 통해 BMS와 직접 연동이 가능하여 안전한 방전이 가능하다.

Battery Smart Diagnosis System 제품은 BMS를 통해 배터리 관련 여러 정보들을 취득, 분석/진단하는 제품이다. 복호화 기술을 통해 EV, ESS, E-bike 등에 장착된 BMS에서 배터리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통해 성능검사기, 방전기에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동 제품은 배터리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 등을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한다.

**TGV·UTG 가공용 초정밀 레이저
유리가공 솔루션 보유**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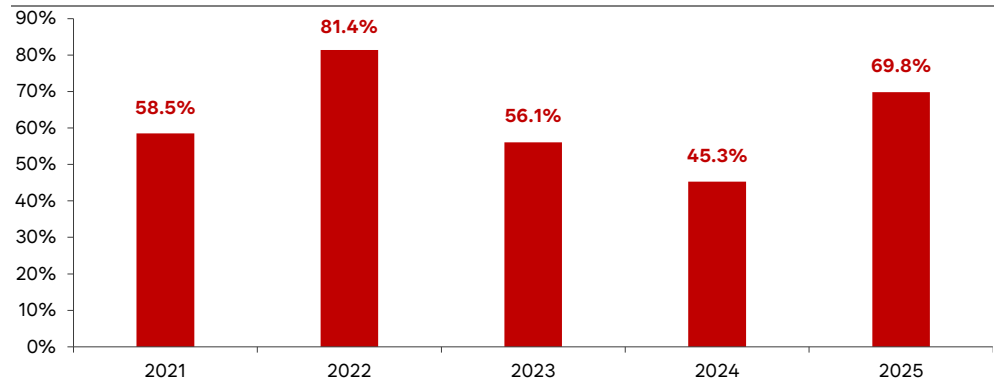
기타 제품은 초정밀 레이저 유리가공 솔루션 등이 있다. 유리기판 제품 제조 상용화를 위한 TGV(Through Glass Via) 홀 가공, UTG(Ultra Thin Glass)용 유리의 정밀 절단/가공, 각종 특수 형상 가공 등에 쓰일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이다. 현재 관련 매출액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유리기판 시장 상용화가 진행될 시 제품 성장이 전망된다.

주 고객은 국내/외 이차전지 제조/판매 전문기업 및 일부 완성차 기업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과 일부
완성차 기업이 고객, 2025년 수출
비중 69.8%

하나기술은 국내/외 이차전지 제조/판매 글로벌 전문기업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완성차 기업향으로도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참고로 연결 기준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2023년 56.1%, 2024년 45.3%, 2025년 69.8%였다.

하나기술 연도별 매출액 중 수출 비중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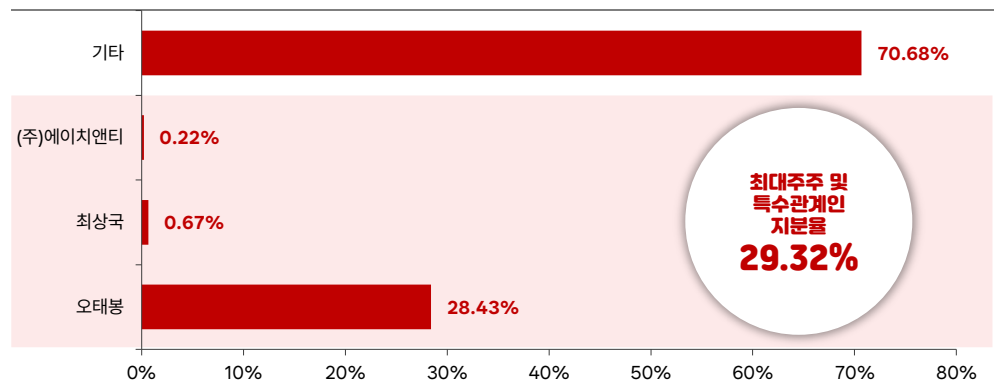
최대주주 등은 오테봉 現 대표이사 외 2인

최대주주는 오테봉 대표이사로
지분 28.43% 보유, 특수관계인
포함 29.32%

하나기술 최대주주는 오테봉 現 대표이사로, 2026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지분 28.43%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H26말 기준 지분율은 29.32%이다.

오테봉 대표이사는 1966년생으로, 서울산업대학교 기계공학 학사를 졸업한 후 1989~2000년 기간 동안 (주)스프레 이시스템코리아, (주)삼우엔지니어링, (주)케이엠더블유에서 근무하였다. 2000년 6월 하나기술의 전신인 하나이엔지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했다. 그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하나기술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며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하나기술 주주 현황(1H26 기준)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글로벌 배터리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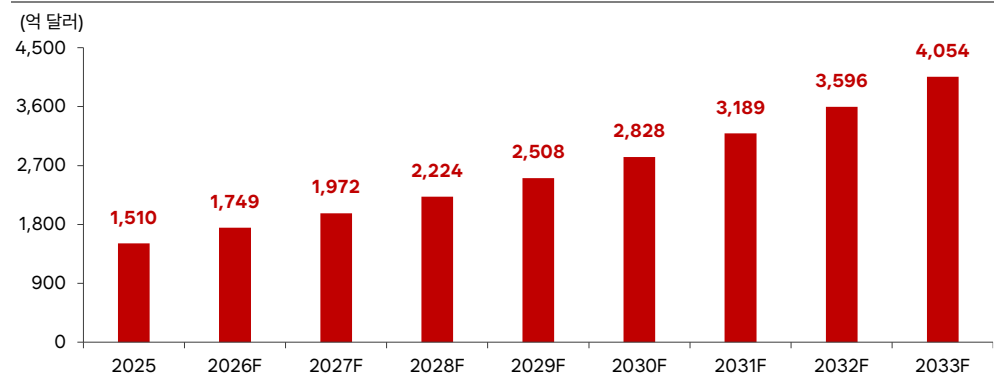
전기차 중심 증설 이후 수급 조정
국면, EV와 ESS 수요를 바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12.8% 성장 전망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중심의 대규모 증설 이후 생산능력과 수요의 격차를 조정하고 있다.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을 전제로 생산능력을 늘렸지만, 실제 수요 증가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기차는 높은 초기 구매가격과 충전 부담으로 대중시장 확산에 제약을 받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구매 지원 축소까지 겹쳤다.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증가율은 2023년 33.4%에서 2025년 21.5%로 낮아졌다. 이에 선제적으로 증설한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완성차와 셀 업체의 투자 일정도 조정되었다.

전기차(EV) 시장 성장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기차 판매는 증가를 이어갔고, 차량당 배터리 탑재량도 커지면서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2023년 1,406.1만 대에서 2025년 2,147만 대로 5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705.5GWh에서 1,187.0GWh로 68.2% 확대되었다. ESS(에너지저장 시스템)용 배터리 출하량도 2023년 185GWh에서 2025년 550GWh로 약 3배 늘면서, 전기차 수요만으로 채우지 못한 배터리 생산능력을 흡수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수요는 전기차와 ESS가 함께 이끌 전망이다. 전기차에서는 보급형 모델과 충전 인프라 확대가 구매·이용 부담을 낮추고, 배출 규제가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ESS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26년 1,749억 달러에서 2033년 4,054억 달러로 연평균 1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BEV 비중 확대와 차량당 탑재량
증가로 EV용 배터리 수요는 판매
대수보다 빠르게 증가

1) EV 시장 현황

EV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자동차 판매 증가와 함께 차량당 배터리 탑재량 확대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2026년 1~8월 글로벌 전기차(BEV·PHEV) 인도량은 1,372.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순수전기차(BEV)는 987.6만 대로 13.5% 증가한 반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384.9만 대로 9.8% 감소해 BEV 비중이 67.1%에서 72.0%로 높아졌다. BEV는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PHEV보다 차량당 배터리 탑재량이 커, 판매 비중이 높아질수록 같은 판매 대수에서도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다. 일반 하이브리드(HEV)까지 포함한 전기차용 배터리 통계에선 같은 기간 사용량이 844.2GWh로 19.7% 증가했고, 차량당 평균 탑재 용량도 35.1kWh에서 39.2kWh로 확대되었다. 배

터리 용량 수요는 전기차 판매 대수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정책과 보급 수준, 신차 공급에 따라 그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다.

중국은 구매세 혜택 축소로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으나 대당 탑재량 증가로 배터리 수요는 성장 지속

중국은 구매 지원 축소로 전기차 판매가 조정세이다. 2026년부터 BEV와 PHEV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매세 혜택이 전액 면제에서 반액 감면으로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높아졌다. 요건을 충족한 BEV, PHEV 두 차종에는 교체보조금이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PHEV는 지원 대상에 필요한 최소 전기 주행거리 기준이 43km에서 100km로 강화되어 일부 보급형 모델에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 2026년 1~8월 중국 전기차 인도량은 75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판매 감소는 PHEV(-23.3%)에 집중되었고, BEV는 1.0% 증가했다. BEV 시장에서 기존 주력 모델의 부진을 신규 모델이 상쇄하는 모습이었다. 2026년 1~7월 리오트 i6와 샤오미 YU7은 각각 13.6만 대, 11.5만 대 판매되었다. 대당 배터리 탑재량도 증가하고 있다. 소용량 배터리를 쓰는 초소형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같은 기간 중국 전기차(HEV 포함) 등록 대수는 8.6% 감소했지만 배터리 사용량은 16.6% 늘었다. 이에 따라 대당 평균 배터리 탑재량은 47.1kWh에서 60.2kWh로 27.6%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은 완성차 판매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BEV 판매 유지와 대당 탑재량 증가가 판매 둔화를 보완하며 배터리 수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은 배출 규제와 구매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인도량과 배터리 사용량이 약 29% 증가

유럽은 배출 규제에 대응한 전기차 공급 확대와 각국의 구매 지원이 수요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U는 완성차 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부담금을 부과한다. 주행 중 배출량이 0으로 계산되는 BEV는 판매 비중이 높아질수록 평균 배출량을 낮추므로, 완성차 업체들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BEV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26년 약 60종의 신규 BEV 모델이 출시될 전망이다. 여기에 EU 회원국인 독일 정부는 2026~2029년 총 30억 유로 규모의 구매 지원책을 통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있다. 즉 EU의 규제가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각 회원국의 보조금이 구매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EU와 별도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은 무공해차 의무판매 비율을 2026년 33%에서 2027년 38%로 높여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자동차산업협회는 BEV 판매량이 2025년 47.3만 대에서 2026년 59.7만 대, 2027년 7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사용량은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6년 1~8월 유럽 전기차 인도량은 33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했으며, BEV는 33.2% 늘어 성장을 주도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29.2% 증가했다. 배출 규제에 대응한 신차 공급과 구매 지원이 이어지면서, 유럽은 글로벌 EV용 배터리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유럽 주요 전기차 정책

구분	정책	시행	주요 내용	목적
EU	승용차 CO ₂ 배출 기준	2025년~	업체별 판매 차량 평균 배출량 상한 : 2025~29년 93.6g/km → 2030~34년 49.5g/km → 2035년 0g/km 초과 시 g/km당 차량 1대마다 95유로 부담금, BEV 배출량은 0g/km로 산정	수송 부문 탄소 배출 감축
독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2026~2029년	총 30억 유로(BEV 최대 6,000유로, PHEV-EREV 최대 4,500유로) 가구 과세소득 8만 유로 이하에 적용	중저소득 가구의 구매 부담 완화
영국	무공해차(ZEV) 의무판매제	2024년~	신차 판매 중 무공해차 비율: 2025년 28% → 2026년 33% → 2027년 38% → 2030년 80%	2035년 신차 100% 무공해 전환

자료: EU 집행위원회, Regulation (EU) 2019/631, 독일 연방환경부(BMUKN), 영국 Vehicle Emissions Trading Schemes Order 2023, SMM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도는 전기차 판매 확대와 셀 국산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신규 생산시설 투자 수요 발생 전망

인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현지 배터리 생산기반 구축이 함께 진행되는 초기 성장 시장이다. 2026년 1~8월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했다. 인도는 원유 수요의 8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 안보와 배터리 국산화를 위해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당시 전량 수입되던 배터리 셀의 국내 생산을 위해 50GWh 규모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PLI 사업을 통해 2025년 10월까지 기한 내 가동된 생산능력은 1.4GWh로, 목표의 2.8%에 그쳤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셀 조달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 차원에서도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현지 생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 9월 확정된 기업평균연비(CAFE III) 기준은 인도의 전기차 판매를 뒷받침하는 추가 요인이다. 2027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은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규제 준수 계산에서 BEV 판매 1대를 3대로, PHEV를 2.5대로 인정한다. 이러한 가중치로 인해 전기차 판매를 늘릴수록 기준 충족이 쉬워져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유인이 커지는 구조다. 이처럼 인도는 중국·유럽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전기차 수요 확대와 셀 국산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배터리 사용량 증가와 신규 생산시설 투자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주요 전기차 · 배터리 정책

정책	시행	주요 내용	목적
셀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2021년 5월 승인	셀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보조금 지급(총 1,810억 루피, 50GWh 한도) 참여 조건: 업체당 5GWh 이상 공장 건설, 셀 가치 중 인도 내 생산 비중 2년 내 25%·5년 내 60% 달성	셀 수입 의존 축소 전기차 확산을 통한 원유 수입 절감 (2조~2.5조 루피)
기업평균연비 (CAFE III)	2027년 4월 적용 (2026년 9월 고시)	업체별 평균 CO ₂ 배출 기준 강화(FY28 94.8 → FY32 78.9g/km) 평균 계산 시 친환경차 판매를 가중 반영	승용차 연비 개선과 탄소 배출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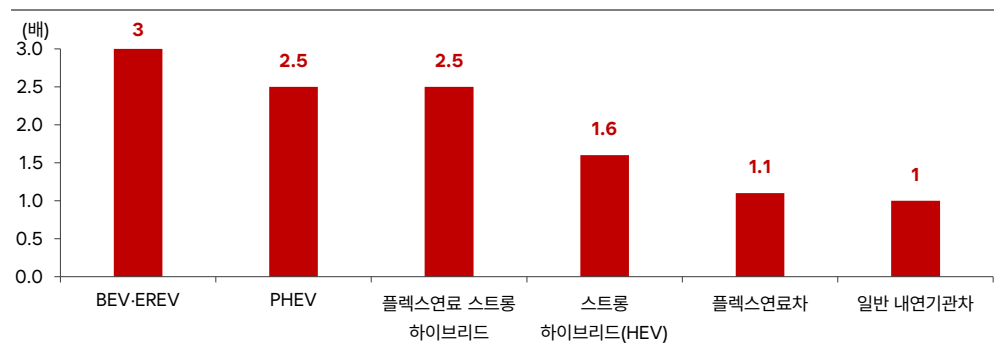
자료: 인도 정부 PIB(2021.5.12), JMK Research·IEEFA, 인도 전력부, Autocar Indi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AFE III 슈퍼크레딧 적용 예시

구분	그대로 계산	BEV 3배 인정(슈퍼크레딧)
휘발유차 판매	90대 × 120g/km	90대 × 120g/km
BEV 판매	10대 × 0g/km	10대 × 0g/km
평균 계산에 반영되는 BEV	10대	30대(10대 × 3)
총 배출량 합계	10,800	10,800
평균 계산에 반영되는 총 대수	100대	120대
평균 CO ₂ 배출량	108g/km	90g/km
기준(94.8g/km) 충족 여부	미달	충족

주: 휘발유차 120g/km, BEV 0g/km를 가정한 단순화 예시. 기준 94.8g/km는 FY28 기준치, 자료: 인도 전력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AFE III 차종별 판매 대수 가중치



자료: 인도 전력부, Autocar Indi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은 세액공제 종료 이후 수요 부진이 지속되나, 가격·상품성 개선을 통한 점진적 회복 단계

미국은 다른 성장 지역에 비해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구매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급격한 조정세에서는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년 9월 말 구매 세액공제 지원 종료는 가솔린차·일반 하이브리드 대비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종료 직전 구매가 집중되면서 이후 수요 공백도 발생했다. 2026년 3분기 미국 BEV 판매량은 약 26.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6.1% 증가했다. 신규 모델을 투입한 일부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했으며, 높은 휘발유 가격도 전기차의 운행비 절감 매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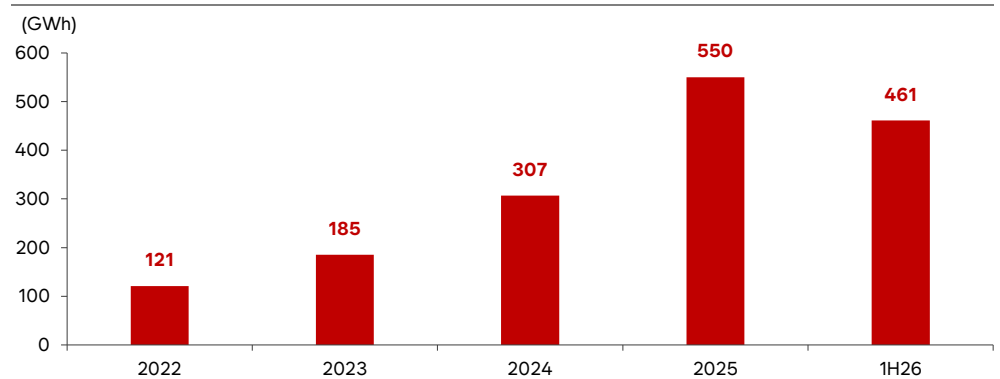
2027년 미국의 회복 속도는 구매 지원 종료로 높아진 가격 부담을 제조사들이 얼마나 보완하는지에 달려 있다. 보급형·중형 SUV와 저가 트림 확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급에서 선택지를 넓히고, 제조사 인센티브는 내연기관차와의 실구매가격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신차 판매가 연간 실적에 반영되고 가격대가 다양해지는 점은 점진적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성장 재개보다 가격·상품성 개선을 통해 수요 기반을 회복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ESS용 배터리 출하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

2) ESS 시장 현황

ESS는 배터리 시장 수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로, 전력의 생산과 소비 시점이 어긋날수록 필요성이 커진다. 공급 측면에서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사용량이 발전·송전 설비 확충보다 빠르게 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SS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글로벌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은 461.3GWh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으며, 이는 2023년 연간 출하량(185GWh)의 2.5배 규모다. 용도별로는 전력망용이 347.0GWh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3%, 74% 증가하며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



자료: SNE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은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과 발전설비 공급 병목으로 ESS 설치가 빠르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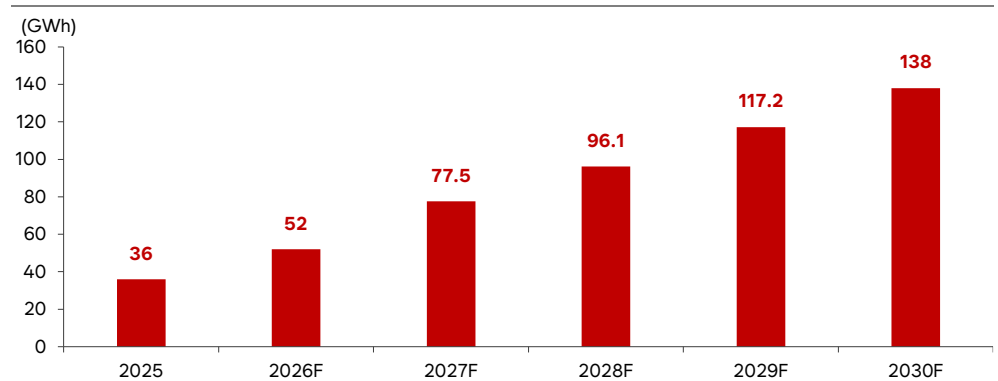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2014년 58TWh에서 2023년 176TWh로 늘어 전체 전력 소비의 4.4%를 차지했다. 2028년에는 325~580TWh로 증가하여 그 비중이 6.7~1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데이터센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규 발전설비가 전력망 연결을 신청한 뒤 상업 운전에 들어가기까지는 중간값 기준 5년 이상이 소요되며, 주요 업체의 가스터빈은 2030년 물량까지 사실상 매진되었다. 이러한 수급 부족은 전력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 최대 전력망인 PJM의 2027/28년 용량시장 가격은 상한인 MW·일당 333.44달러로 결정되어, 2024/25년 대비 10배 이상 상승했다. 확보한 예비율은 14.8%로 목표치인 20%에 미달했다. PJM은 같은 기간 최대 전력 수요가 약 5,250MW 증가하고, 증가분의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이러한 공급 병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SS 시설은 발전소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전력망 연결 전 데이터센터의 가동을 앞당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GPU 연산에 따라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전력 부하를 완충하는 역할도 한다. PJM이 부족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진행하는 약 6GW 규모의 긴급 입찰에서도 건설 기간이 짧은 ESS가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ESS 설치량은 2025년 51GWh로 전년 대비 52%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6~2031년에는 누적 500GWh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ESS 사업성이 개선되며
2030년 연간 신규 설치량 약
138GWh 전망**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ESS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2025년 EU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였으며, 풍력과 태양광의 합산 비중은 30.1%로 처음으로 화석연료 발전을 넘어섰다. 발전량이 수요를 웃도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독일의 전력 도매가격이 0 아래로 떨어진 시간도 2024년 457시간에서 2025년 573시간으로 증가했다. 이에 가격이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판매하는 차익거래와 함께, 주파수 조정 등 전력망 안정화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ESS 사업성이 개선됐다.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함께 설치하는 프로젝트도 늘고 있다. 2025년 유럽 ESS 신규 설치량은 36GWh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이 중 전력망용은 19GWh로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 성장을 이끌었다. 추가 설치 여력도 크다. 2025년 유럽의 누적 ESS 설비는 처음으로 100GWh를 넘어섰지만, 업계는 EU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600GWh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추산된다. 유럽의 연간 ESS 신규 설치량은 2026년 52GWh에서 2030년 약 138GWh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 ESS 연간 신규 설치량 전망



주: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기준, 자료: SolarPower Europe(2026), eesEurop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EV와 ESS 수요 증가 속에 지역별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에 따라
배터리 장비 수요가 차별화될 전망**

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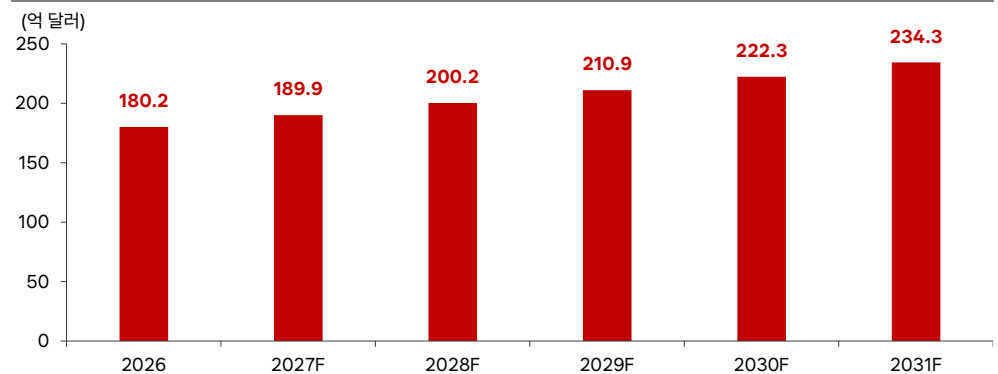
종합하면,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EV의 BEV 중심 성장과 ESS의 빠른 확대를 바탕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는 우선 기존 공장의 가동을 회복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인도처럼 현지 공급기반이 부족한 지역과,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 확대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유럽에서는 신규 생산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터리 제조장비 수요는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별 신규 투자 규모와 집행 시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글로벌 배터리 조립,化成 장비 산업 현황

**배터리 제조장비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5.4%로
성장 전망.化成 검사 장비 시장은
장비 전체 시장보다 고성장 기대**

글로벌 배터리 제조장비 시장은 EV·ESS용 생산시설 투자와 생산 효율 개선 수요에 따라 2026년 180.2억 달러에서 2031년 234.3억 달러로 연평균 5.4%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化成·검사 장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12.5% 성장하여 전체 시장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셀의 성능과 수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충/방전 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불량을 선별하는 후공정 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장비 시장 규모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조립 장비는 셀 형태별 설계
경험이,化成 장비는 처리 시간과
전력 사용량 절감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

배터리 셀 제조는 전극, 조립,化成의 세 공정으로 나뉜다. 전극 공정은 양극재·음극재 등 소재를 금속박에 도포하고 건조·압연해 전극을 만드는 단계이다. 조립 공정에서는 두 전극 사이에 분리막을 넣고 적층하거나 감아 외장재에 담은 뒤, 전해액을 주입하고 밀봉한다. 이후化成 공정에서 셀을 처음 충방전해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하고, 에이징과 검사·선별을 거쳐 성능과 불량 여부를 확인한다.

조립 장비의 구성은 셀 형태와 규격에 크게 좌우된다. NCM과 LFP는 양극재의 대표적인 종류로, 셀 형태와 규격이 같으면 조립 공정의 기본 구성은 유사하다. 반면 각형은 금속 캔을 용접하고 파우치형은 복합필름을 열로 밀봉하는 등 외장 구조와 접합 방식이 달라 필요한 장비 사양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비 업체에는 고객이 생산하려는 셀 형태에 맞춘 설계·제작 경험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다.

化成 장비는 셀 형태뿐 아니라 소재 조합과 용량, 충/방전 조건의 영향도 받는다. 첫 충전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형성되는 SEI 보호막은 전해액의 추가 분해를 억제하며, 형성 상태와 안정성이 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재와 셀 설계에 맞춰 전류·전압·온도를 제어해야 한다.化成과 에이징을 포함한 처리에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어, 처리 시간이 길수록 필요한 설비와 공장 면적도 늘어난다. 이에 장비 업체들은 방전 에너지 회수와 충/방전 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 시간과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품질과 수명을 유지하면서 처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은 셀 제조사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함께 낮추는 경쟁 요소이다.

배터리 셀 제조 공정 개요

구분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화성 공정
목적	소재를 금속박에 입혀 양음극 전극 제조	전극과 분리막을 셀 형태로 구성하고 전해액 주입·밀봉	첫 충방전으로 셀을 활성화하고 성능·불량 검사
세부 공정	믹싱 → 코팅 → 건조 → 압연 → 슬리팅	노칭 → 적층권취 → 탭 용접 → 외장재 삽입·밀봉 → 전해액 주입 → 최종 밀봉	초기 충전 → 에이징 → 충방전 → 검사·선별
주요 장비	믹서, 코터, 건조기, 롤프레스, 슬리터	노칭기, 스태커와인더, 용접기, 패키징 장비, 주액기	충방전기, 에이징 설비, 검사·선별기
장비 사양 결정 요인	소재 특성, 전극 폭두께, 생산 속도	셀 형태와 규격(외장 구조, 접합 방식)	셀 형태, 소재 조합, 용량, 충방전 조건
핵심 경쟁 요소	코팅 균일도, 생산 속도	셀 형태별 설계·제작 경험	처리 시간 단축, 전력 사용량 절감, 품질 유지

자료: 산업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각형 생산기반 확대와 중국의 장비
수출통제로 비중국 조립·화성 장비
업체의 공급 기회 확대

장비 수요는 셀 제조사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받는다. 기존 공장에 생산 여력이 있으면 수요 회복에 가동률 상승으로 대응하므로, 신규 장비 발주는 지역별 현지 생산기반 구축과 제품 전환 투자에서 발생한다. 유럽과 인도에서는 완성차 생산계획에 맞춰 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규 공장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EV 설비를 ESS용 LFP 생산에 활용하면서 기존 설비의 재사용 범위에 따라 장비 개조·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에서 주목할 변화는 각형 생산기반의 확대이다. 2026년 1~8월 글로벌 각형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여 전체 시장 성장률인 약 20%를 웃돌았다. 각형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시설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의 PowerCo는 계열 완성차에 공급할 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규격 표준화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독일에 각형 셀 공장을 구축했으며, 2025년 12월 첫 셀을 생산했다. 각형은 ESS에도 널리 활용되는 만큼, 관련 조립·전해액 주입 기술을 보유한 장비 업체는 EV와 ESS용 신규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공급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각형 장비는 중국 내 대규모 증설을 통해 양산 라인 공급 경험을 축적한 중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이다. 여기에 중국의 수출통제가 해외 고객의 공급처 다변화를 유도할 변수로 더해지고 있다. 중국은 2025년 10월 적층기·전해액 주입기·화성 시스템 등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시행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되어 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셀 업체는 허가 절차에 따른 장비 반입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유인이 커진다. 이에 중국 밖의 각형 생산시설 투자와 장비 조달 다변화가 맞물리면서, 목표 생산성과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비중국 조립·화성 장비 업체의 공급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중국 배터리 제조 장비 수출통제 현황

구분	내용
조치	배터리 제조 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이중용도 물자)에 추가해, 수출 시 중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
발표 및 시행	2025년 10월 9일 발표, 2025년 11월 8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
대상 장비 (조립)	권취기, 적층기, 전해액 주입기, 열압착기
대상 장비 (화성)	화성·분용 시스템, 용량 선별 캐비닛
대상 장비 (소재)	양극재: 롤러 소성로, 고속 믹서, 샌드밀, 기류 분쇄기 / 음극재: 인조흑연 조립(造粒)·흑연화·코팅 장비
허가 방식	수출 건마다 허가를 받는 개별허가(1년 이내, 1회 수출)가 원칙. 수출 실적이 쌓인 업체만 여러 건을 한 번에 허가받는 일반허가(3년 이내) 가능
심사 기간	신청 후 원칙적으로 45 근무일(약 2개월) 이내

자료: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58호·제70호,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장비 업체 실적은 해외
고객과 각형·ESS 확보
여부/정도에 따라 차별화,
후속 증설 수주가 성장 관건**

국내 조립·화성 장비 업체의 실적은 기존 고객의 투자 축소를 보완할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 EV 신규 증설이 둔화된 가운데, 해외 고객과 각형·ESS로 공급 범위를 넓힌 업체는 실적을 방어한 반면, 기존 고객의 신규 장비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매출 공백이 확대되었다.

셀 조립 공정 장비를 토크로 공급하는 **엠플러스**는 해외 고객 확보와 EV·ESS용 제품군 확대를 통해 투자 둔화에 대응했다. 기존 납품 장비의 유지보수와 고객의 생산라인 전환 수요도 매출을 보완하면서, 2025년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842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와 각형 EV·ESS 관련 매출 확대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에도 매출 830억 원, 영업이익률 17.1%를 유지했다. 기존 파우치형 EV 장비에서 공급 범위를 넓힌 것이 업황 부진 속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한 배경이다.

레이저 노칭과 스테킹 장비를 공급하는 **필에너지**는 고객사의 설비투자 지연으로 신규 장비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이차전지 공정장비 매출은 2024년 2,632억 원에서 2025년 272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개조·부품 매출 36억 원이 발생했으나 신규 장비 매출 공백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하여, 연결 매출 41억 원과 영업손실 11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형 원통형 배터리용 권취기와 전고체 파일릿 라인용 적층 설비로 공급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신규 고객의 발주 확대가 실적 회복의 관건이다.

화성·조립 장비를 공급하는 **원익피앤이**는 장비 매출 회복과 비용 절감으로 2025년 흑자 전환했다. 이차전지 장비 매출이 2024년 2,548억 원에서 2025년 3,451억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제조원가 개선과 판매관리비 축소가 더해져 영업이익 14억 원을 기록했다. 이후 고객사의 설비투자 지연으로 2026년 상반기 이차전지 장비 매출은 347억 원에 그쳤다. 전원공급장치 매출은 상반기에만 130억 원으로 전년 연간 108억 원을 넘어섰으나, 주력 장비의 부진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면서 연결 영업손실 70억 원을 기록했다.

모듈·팩 조립과 물류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토크텍**도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의 영향을 받았다. 이차전지 장비와 반도체·디스플레이·물류 자동화 등을 포함한 FA 부문 매출은 2024년 4,561억 원에서 2025년 1,563억 원으로 감소해 연결 외형 축소를 주도했다. 2026년 상반기 FA 매출은 640억 원, 연결 영업손실은 5억 원을 기록했다. 여러 산업에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고 있으나, 전체 FA 매출의 회복으로 이어질 만큼 신규 프로젝트 매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장비 업체의 성장성은 각형·ESS 대응 기술을 실제 양산 라인 수주로 연결하고, 고객의 후속 증설에서 반복 공급을 확보하는 역량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하나기술은 조립·화성 공정의 통합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 셀 업체의 생산시설 구축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형 EV 장비에서 ESS용 장비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既 확보한 해외 프로젝트의 제작·납품이 진행되면서 매출 회복이 기대되며, 첫 라인의 공급 경험을 후속 증설 수주로 연결할 경우 성장 지속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유사 라인의 반복 공급은 추가 설계·수정 비용을 줄이고 자재 조달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외형 확대와 함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포인트

1 해외 고객 중심으로 수주 회복 및 매출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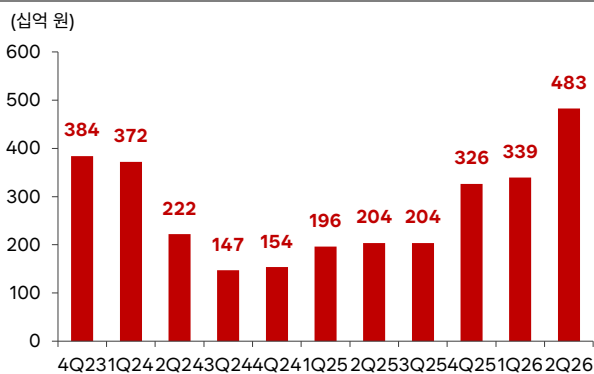
**인도 A사향 대형 턴키 수주로
1H26말 수주잔고 4,825억 원,
2H26부터 매출 회복 기대**

해외 고객 수주 확대를 중심으로 수주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 기대된다.

하나기술의 분기별 수주잔고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아래 그래프 참조). 4Q23말 기준 동사 수주잔고는 3,839억 원 수준이었으나, 2Q24부터 수주잔고는 낮아지기 시작하여 3Q24~4Q24 기준으로 약 1,500억 원으로 낮아졌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중대형 배터리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의 여파로 글로벌 이차전지 고객사들이 설비투자를 순연시켜 동사 수주잔고는 감소했다. 다만 AI발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전 세계적 데이터센터 건설 증가와 이에 따른 ESS 업황 개선으로 2025년부터 고객사들의 설비투자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하나기술의 수주잔고는 4Q25말 기준 3,262억 원을 보이며 전분기 2,036억 원 대비 도드라지게 증가했다. 통상 동사는 수주 이후 약 10~18개월 후 매출을 순차적으로 인식을 하는 구조이기에, 2H26부터 전반적으로 동사 실적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보고서 상 2Q26말 기준 수주잔고는 4,825억 원으로 급증했는데, 동 수주잔고를 구분하여 보면 인도 A사 3,190억 원, 북미 E사 546억 원, 국내 S사 120억 원, 기타 969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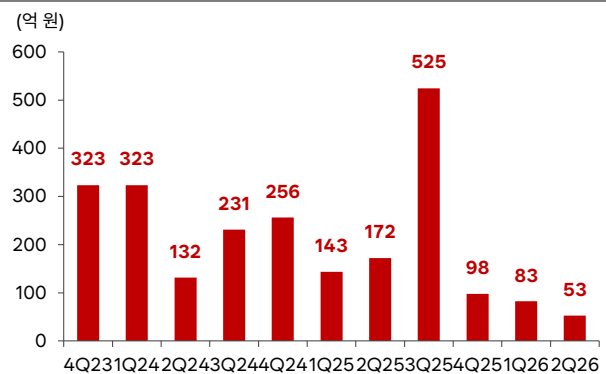
특히 해외 고객인 인도 A사향 최근 수주가 주목된다. 동사는 공시를 통해 2025년 12월과 2026년 6월에 인도 A사향 공급계약 체결을 각각 알렸다(2025.12 1,575억 원, 2026.06 1,615억 원 수주 공시). 동 프로젝트는 해당 고객의 인도와 영국 사이트에 동사 조립 장비를 턴키로 공급하는 것으로, 각형 EV(전기차) 조립 공정 전체 장비 제품들이다. 동 수주는 크게 4단계로 순차적으로 매출이 인식될 전망이다. 첫 약 8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오는 4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턴키 계약인 만큼, 부품 바이파워 및 규모의 경제 확보가 가능하여 동 프로젝트 수익성은 여타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참고로 인도 A사는 특정 완성차 수요처가 확실한 상황이라 제품 납품 및 셋업을 빠르게 요구하고 있어 공급 지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하나기술 분기별 수주잔고 추이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하나기술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도 A사향 프로젝트

site별 수주 및 확장 구조

구분	확보 수주	매출 전환 시기	전략적 의미
 인도	당사수주 확보 20GWh/약 1,575억원	'24H2부터 1라인 순차 납품-매출 인식	2026년 실적 가시성 확보의 핵심프로젝트
 영국	당사수주 확보 20GWh/약 1,615억원	'27년 매출 간인 프로젝트로 연결	2027년 매출 연속성 확보 및 글로벌레퍼런스강화
핵심포인트 인도·영국 2개 거점 수주를 단계적으로 매출화, 고객 내 신뢰와 수행 실적을 축적			

프로젝트 납품 위치

인도영국 2개 거점 기반 대규모 셀 제조 프로젝트
글로벌 EV/ESS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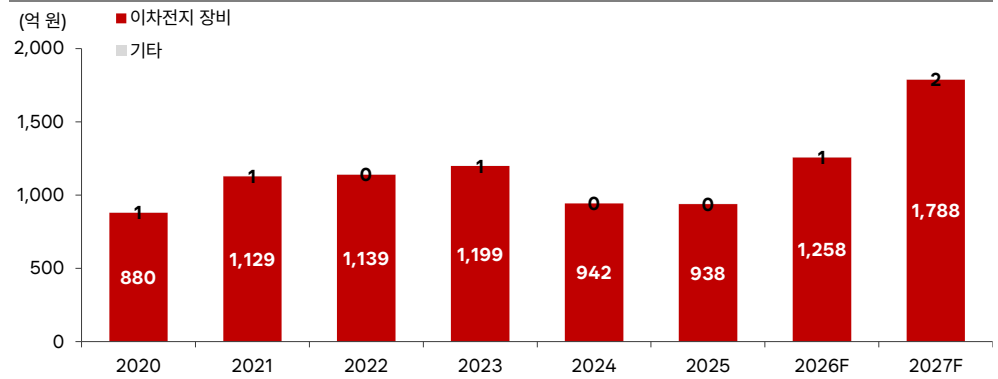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4Q26~1Q27 중에 인도 A사 외 해외 고객들의 추가 수주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S사, 이탈리아 모 기업향이 유력하다. 이러한 해외 고객들의 주문은 동사의 기술력, 특히 전해액 주입기 제품 퀄리티에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동사 기술력은 특허권 출원 및 등록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H26 누적 기준으로 하나기술은 특허권을 142건 출원했고, 35건을 등록했다. 동사의 특허권은 이차전지 조립 장비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유리기판 관련(글라스 열면취 가공 장비 등), 전고체전지 관련(전고체전지 검사 설비), 화성 공정 관련(충/방전 장비) 특허 출원, 등록도 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기술의 이차전지 조립 장비 사업 외 신사업 진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유리기판 시장 상용화 등은 기대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어 동사 관련 매출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신성장동력 준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하나기술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자회사(하나셀트론) 성장 기대

펄스 포메이션 기술을 보유한 연결 자회사 하나셀트론의 성장 기대

연결 자회사 하나셀트론의 성장이 기대된다.

하나셀트론은 2025년말 자본 10억 원으로 설립되어 동사는 지분 90.0%를 취득,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였다. 1H26 중 사업 진행 등을 위해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동사의 하나셀트론 지분율은 1H26말 기준 65.0%이다. 하나셀트론은 전반적인 충/방전 제품 개발/공급 사업을 영위하는데, 특히 펄스 포메이션 기술을 확보한 점에 주목한다.

펄스 포메이션은化成 공정 시간 30~50% 단축 효과, 2027년부터 양산 라인 수주 전망

펄스 포메이션(Pulse Formation)은 배터리 충/방전을 빠르게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이다. 펄스 기술은 기존의 정전류·정전압(CC-CV) 방식과 달리 전류 흐름을 주기적으로 조절하여 배터리 내부의 물리적 및 화학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하나셀트론은 현재 국내/외 여러 잠재 고객들과 펄스 포메이션 충/방전 테스트/평가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고, 고객들의 초기 반응이 양호한 상황이다. 1H26부터 일부 고객의 파일럿 라인에 펄스 포메이션 장비 수주를 받고 있다. 동 기술의 장점은 포메이션 공정 시간이 기존 대비 30~50% 단축되고, 배터리 수명이 기존 대비 12~30% 개선 가능하며, 배터리 내부 덴드라이트(Dendrite, 충전시 리튬이 전해질에 녹아 결정체가 형성되는 현상) 형성 억제를 통한 제품 안전성 향상도 가능하다. 또한 고객사 투자 효율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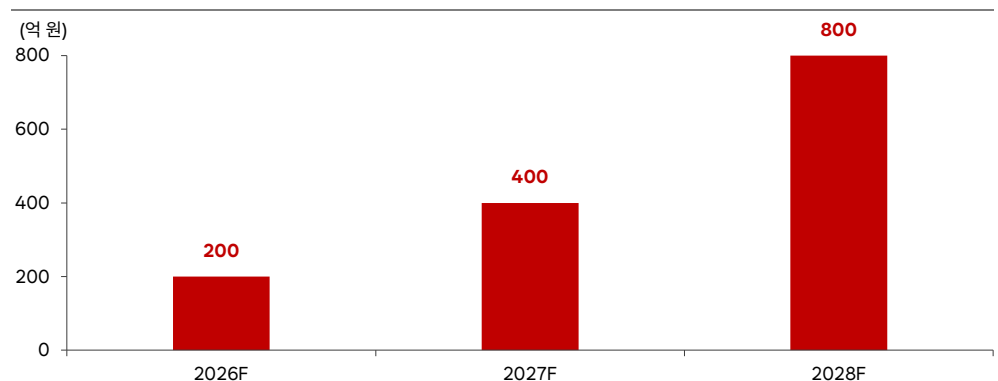
펄스 포메이션 기술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하나셀트론의 1H26말 기준 수주잔고는 총 44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26억 원이 펄스 포메이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은 파일럿 라인용 펄스 포메이션 제품 위주로 수주를 획득했다. 2027년부터는 양산 라인용 펄스 포메이션 제품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매출 규모 확대는 2027년부터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사업 초기인만큼 불확실성은 일부 존재하나 고객 반응을 고려시 하나셀트론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하나셀트론 연도별 수주 목표/계획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review

2025년 매출액 938억 원(-0.4% YoY), 영업이익 -0.4억 원(적자지속 YoY) 기록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38억 원, -0.4억 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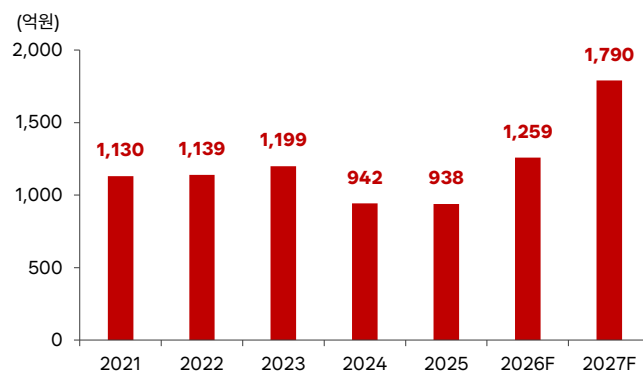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은 전년(942억 원)과 유사한 938억 원을 기록했다. 2H24부터 수주잔고가 뚜렷이 감소했으나 매출액 인식은 각 수주 후 약 1~1.5년 이후 반영되기에 2025년 매출 감소는 제한되었다. 고객별로는 프랑스 B사 및 국내 모 고객의 기수주분이 견조하게 매출에 반영되어 매출은 전년 수준을 보였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264억 원) 대비 크게 개선된 -0.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규모가 유사했음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것은 다음 2가지 사유에 기인했다. 2024년 비용 효율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이후 인건비 감소 효과가 이듬해인 2025년에 본격화되었다. 또 2025년에는 2024년 주로 납품했던 장비들을 재공급하며 부품 조달비와 셋업 관련 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감할 수 있었다.

2025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84.4%, 15.7%를 기록하여 2024년 대비 매출원가율은 20.1%p 하락했고, 판관비율은 7.9%p 하락했다. 2024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104.5%, 23.6%였다. 절대금액으로 보면 매출원가의 경우 2024년 984억 원에서 2025년 792억 원으로 192억 원 감소했고, 판관비의 경우 2024년 222억 원에서 2025년 147억 원으로 75억 원 감소하는 수준을 보였다. 즉 매출원가와 판관비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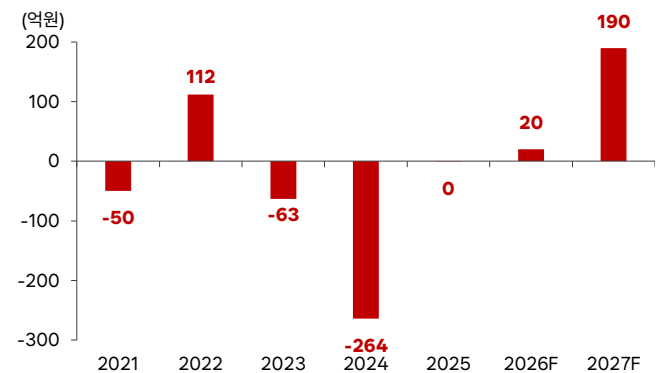
참고로 사업보고서 상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 원재료 및 소모품사용 항목이 2024년 485억 원에서 2025년 365억 원으로 120억 원 감소했고, 종업원급여 항목이 2024년 255억 원에서 2025년 197억 원으로 58억 원 감소했으며, 기타비용 항목이 2024년 154억 원에서 2025년 84억 원으로 70억 원 감소했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F, 2027F 실적 전망

1H26 매출액 136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기록

1H26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36억 원, -1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반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은 180억 원 감소했고, 영업적자는 54억 원 확대되었다. 전년 반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16억 원, -46억 원이었다. 4Q24~1Q25 기간의 저조한 수주잔고 상황이 매출로 인식되며 반기 매출액 규모가 크게 줄었다. 4Q24, 1Q25 수주잔고는 각각 1,535억 원, 1,960억 원으로 저점 수준이었다. 여기에 일부 고객사의 납품 지연 요청과 전반적인 운송 지연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00억 원으로 전년 -46억 원 대비 크게 악화되었다. 상반기 매출 규모가 전년 반기 대비 감소한만큼 규모의 경제 미비로 인해 영업적자 확대는 불가피했다. 상반기 수익성(영업이익률)은 -74.0%를 기록하여 전년 반기 -14.5% 대비 대폭 악화되었다.

1H26 매출원가율, 판매비율은 각각 121.7%, 52.2%를 기록, 전년 반기 대비 매출원가율은 33.1%p 상승하고, 판매비율은 26.2%p 상승했다. 매출액의 절대금액이 크게 감소하다보니 1H26 매출원가율, 판매비율 모두 전년 반기 대비 큰 상승을 보였다.

2026년 매출액 1,259억 원(+34.2% YoY) 전망, 인도 A사항 1단계 매출이 4분기에 반영

2026년 연간 매출액은 1,259억 원(+34.2% YoY)으로 전망한다. 수주잔고가 4Q24~1Q25 시기 저점 수준을 보인 이후 4Q25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했기에 2026년 하반기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4Q26에 매출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3Q26, 4Q26 분기별 매출액은 각각 159억 원, 1,100억 원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매출액 인식은 건별 수주 후 약 1~1.5년 이후 반영되기에 2H26 매출액 증가 가능성은 높다. 인도 A사항 수주(2025년 12월 수주분) 관련 총 4단계 중 1단계분으로 예상되는 800억 원 대부분이 오는 4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고로 4분기 중 약 400억 원대 신규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프랑스 S사, 이탈리아 모 고객용 각종 조립 장비들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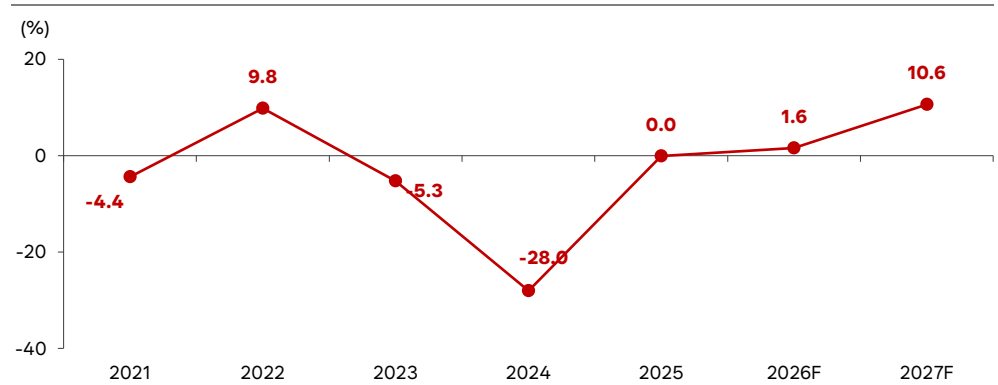
2026년 영업이익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 전망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전년(-0.4억 원) 대비 흑자전환을 전망한다. 전년 대비 매출액 규모가 321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익성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상반기 누적 영업적자가 크고 일부 프로젝트에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어 연간 영업흑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해외 고객 위주로 규모가 큰 수주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액으로 인식될 2027년에는 영업이익 규모가 확대 가능할 전망이다.

**2027년 매출액 1,790억 원,
영업이익 19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

2027년은 전년 대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2027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790억 원, 19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매출액 규모는 동사 역사상 최대치일 것으로 보인다. 해외 고객 특히 인도, 프랑스 고객들의 수주 증가 효과가 주효할 것이다. 연결 자회사 하나셀트론도 연매출 130~150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전사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7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19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7년 동사 매출액 규모를 사상 최대치로 기대하는 만큼, 동 영업이익 추정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매출 인식의 반영에는 일정부분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어 영업이익 절대금액 전망은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 190억 원은 2022년 영업이익 112억 원 기록 이후 사상 최대치일 것으로 보인다.

하나기술 연도별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199	942	938	1,259	1,790
① 이차전지 장비	1,198	942	938	1,258	1,788
② 기타	1	-	0	1	2
영업이익	-63	-264	-0	20	190
지배주주순이익	-38	-155	-58	52	97
YoY 증감률					
매출액	5.3	-21.5	-0.4	34.2	42.1
영업이익	적전	적지	적지	흑전	840.9
지배주주순이익	적전	적지	적지	흑전	85.5
영업이익률	-5.3	-28.0	-0.0	1.6	10.6
지배주주순이익률	-3.2	-16.5	-6.2	4.1	5.4

자료: 하나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6F PER 22.5배로 거래 중
**2026F 예상 PER 22.5배로
코스닥 대비 할인 거래 중**

2026년 10월 19일 기준 하나기술 시가총액은 1,174억 원 수준이다. 2026년 하나기술 예상 PER은 22.5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23.7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하나기술은 이차전지 조립, 화성 공정용 장비 전문기업이다. 동사와 유사한 상장 기업군에는 피엔티, SFA넥셀(舊 씨아이에스), 엠플러스, 필에너지, 토탉, 원익피앤이 등이 있다. 동사의 Peer로 피엔티, SFA넥셀, 엠플러스를 선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나머지 언급된 유사 기업들은 컨센서스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교를 생략한다.

2026년 비교 4개사 PER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PER 22.5배 VS 피엔티 PER 11.5배 VS SFA넥셀 PER 23.3배 VS 엠플러스 PER 5.2배).

피엔티는 롤투롤(Roll-to-Roll) 기반 이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기업으로, 종속회사를 통해 동박·양극활물질·LFP 배터리 생산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배터리 3사의 투자 부진에 더해 동박·LFP 등 신사업의 수익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PER을 보이는 배경으로 판단된다.

SFA넥셀(舊 씨아이에스)은 이차전지 전극 공정(캘린더·코터·슬리터)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이다. 주요 고객사인 LG 에너지솔루션·삼성SDI의 투자 부진으로 2026F 매출액은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최대주주 SFA의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코터로 건식 전극 공정 전환수혜 기대가 선반영되며, Peer 중 가장 높은 PER(23.3배)을 받고 있다.

엠플러스는 동사와 사업 영역이 가장 유사한 이차전지 조립 공정 장비 기업이다. 각형 배터리 조립장비와 초고속 노칭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 수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 전략과 해외 EV용 각형 및 ESS용 장비 매출 확대에 힘입어 1H26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은 17.1%로, 같은 기간 SFA넥셀(약 13.0%), 피엔티(5.7%), 동사(-74.0%)를 상회했다. 다만 높은 수익성에도 Peer 대비 낮은 PER이 형성된 것은, 과거 고객의 투자 일정과 수주 물량의 매출 전환 시점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동하면서 이익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보수적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보인다.

동사가 피엔티, 엠플러스 대비 할증되어 거래되는 것은 2026년이 흑자전환 초기여서 이익 규모가 작은 반면, 1H26말 수주잔고 4,825억 원(2026F 매출액의 약 3.8배)을 기반으로 2027F 이익 증가 가시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7F 기준 PER은 12.1배로,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총액 (십억원, 백만달러)	매출액(십억원, 백만달러)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5,768	4,600,368	3,713,280	3,919,857	4,134,526	11.3	15.5	5.6	0.8	1.3	1.4
코스닥	809	456,302	332,962	361,554	138,944	210.6	112.9	23.7	1.5	2.1	2.8
하나기술	14,680	117	94	94	126	N/A	N/A	22.5	1.4	2.1	1.1
피엔티	32,500	770	1,035	745	728	6.9	13.0	11.5	1.6	1.4	1.1
SFA넥셀	8,600	669	509	407	380	9.5	17.9	23.3	1.2	1.0	1.2
엠펙플러스	10,110	124	129	184	199	8.6	7.0	5.2	1.1	1.4	1.0
동종업종 평균						8.3	12.6	13.4	1.3	1.3	1.1

주: 1) 2026년 10월 19일 종가 기준, 2) SFA넥셀, 엠펙플러스 26F는 당사 추정치, 피엔티 26F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자료: FrGuide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주가는 실적 부진으로

악세,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과

수익성 개선이 회복의 관건

2026년 하나기술 주가는 연초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5년 12월 인도 A사항 1,576억 원 규모 수주 공시(25.12.23)등으로 주가는 2025년 11월말 대비 12월 23일까지 5.7% 상승했으나, 동 공시일 후 12월 30일까지 21.4% 하락했다. 약 3년에 걸친 매출 인식으로 단기 실적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인식과 계약 상대방 비공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2026년 초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과 자회사 하나셀트론의 펄스포메이션 사업화 기대가 주가 반등을 뒷받침했다.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주가는 다시 하락한 뒤, 4월 휴전과 리튬 가격 반등, 미국 ESS 수요 확대 기대에 따른 업종 투자심리 개선으로 5월 초까지 주가는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주가 흐름을 제약한 요인은 실적 부진이었다. 5월 발표된 1Q26 실적은 매출액 83억 원, 영업손실 37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를 약화시켰다. 주가는 4월말부터 7월 말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8월 업종 반등에도 동사 주가 회복 폭은 제한적이었다. 10월 19일 종가는 14,680원으로, 52주 최고가 35,500원 대비 약 59% 하락했다. 최근 6개월 절대수익률은 -49.1%,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은 -26.4%로 매우 부진했다. 실적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시장 대비 부진한 주가의 주 요인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가 회복의 핵심 요소는 확대된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과 수익성 개선이다. 1H26 말 수주잔고는 4,82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인도 A사항 1단계 수주분 약 800억 원의 매출 인식이 4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은 2026년 20억 원으로 흑자전환한 뒤 2027년 19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잔고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주가의 점진적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기술 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1 전기차 산업 캐즘이 예상 외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전기차 캐즘 장기화 시 고객사
투자 지연으로 실적에
부정적 영향 가능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산업에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드리웠다. 전기차 캐즘이 발현되며 스마트카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느려지고, 이차전지 전반적인 업황도 악화된 상황이다. 전기차 캐즘은 길게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라 상당수 완성차 기업들은 순수 전기차 제품 라인업 확대를 속도 조절하고, 하이브리드카를 늘리며 이른바 친환경차 확대 사업 기조는 유지하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 확대는 2020년 이후 높아졌던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향후 전기차 산업 캐즘이 예상 외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차전지 제조사들의 투자가 지연되어 하나기술과 같은 이차전지 장비업체들의 실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ESS 시장이 AI발 데이터센터 확대 기조 등으로 견조하게 성장하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 불황을 일부 상쇄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로봇) 관련 이차전지 수요 기대감 확산도 산업 내 긍정적 요소이다.

2 전환사채 잠재적 부담 존재

2026년 2월 발행한
540억 원 규모 전환사채의
잠재 희석 부담 존재

하나기술은 2026년 2월 23일 제4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만기일은 2031년 2월 23일). 동 전환사채 규모는 540억 원으로, 발행 공시일인 2/23 기준으로 동사 시가총액(2,382억 원)의 22.7% 비중이었다.

동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발행가액은 540억 원, 액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 모두 0%였다. 최초 전환가액은 31,402원이며,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한다. 최대 하향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로 하되 주가 상승시 상향조정(최대 상향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로 제한)하여야 한다. 참고로 26.09.23 현재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80%인 25,122원(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2,149,510)으로 조정되었다. 다만, 현재 주가와 동 전환가는 괴리가 크기에 당분간 이와 관련한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199	942	938	1,259	1,790
증가율(%)	5.3	-21.5	-0.4	34.2	42.1
매출원가	1,031	984	792	1,050	1,350
매출원가율(%)	86.0	104.5	84.4	83.4	75.4
매출총이익	169	-42	147	209	440
매출이익률(%)	14.1	-4.5	15.6	16.6	24.6
판매관리비	232	222	147	189	250
판매관리비율(%)	19.3	23.6	15.7	15.0	14.0
EBITDA	-27	-226	40	64	234
EBITDA 이익률(%)	-2.2	-24.0	4.3	5.1	13.1
증가율(%)	적전	적지	흑전	58.8	267.3
영업이익	-63	-264	-0	20	190
영업이익률(%)	-5.3	-28.0	-0.0	1.6	10.6
증가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840.9
영업외손익	-18	162	-69	35	-78
금융수익	6	12	3	10	11
금융비용	57	68	84	95	99
기타영업외손익	33	217	12	120	1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	-3	-1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82	-106	-70	55	112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102.6
법인세비용	-44	50	-12	3	15
계속사업이익	-38	-155	-58	52	97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8	-155	-58	52	97
당기순이익률(%)	-3.2	-16.5	-6.2	4.1	5.4
증가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85.5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38	-155	-58	52	97

현금흐름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9	-361	100	183	205
당기순이익	-38	-155	-58	52	97
유형자산 상각비	32	34	37	39	41
무형자산 상각비	4	4	3	4	3
외환손익	9	0	3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	-220	79	97	74
기타	8	-24	36	-9	-1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71	-39	-221	-13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3	-8
유형자산의 감소	0	1	3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8	-56	-23	-50	-60
기타	27	-16	-19	-168	-6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0	481	-62	48	119
차입금의 증가(감소)	-30	-55	-57	48	119
사채의증가(감소)	-0	536	-6	0	0
자본의 증가	0	0	1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4	3	-1	6	6
현금의증가(감소)	-16	51	-2	16	199
기초현금	325	309	360	358	374
기말현금	309	360	358	374	574

재무상태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유동자산	991	1,071	1,302	1,537	1,972
현금성자산	309	360	358	374	574
단기투자자산	35	3	65	230	290
매출채권	69	318	373	390	440
재고자산	380	232	151	203	288
기타유동자산	198	157	355	340	380
비유동자산	1,326	1,330	1,331	1,347	1,377
유형자산	1,154	1,200	1,289	1,300	1,319
무형자산	12	11	11	9	7
투자자산	100	99	23	31	43
기타비유동자산	60	20	8	7	8
자산총계	2,317	2,400	2,633	2,884	3,349
유동부채	864	1,147	1,410	1,636	2,011
단기차입금	430	430	430	430	430
매입채무	78	128	51	68	97
기타유동부채	356	589	929	1,138	1,484
비유동부채	327	274	217	189	183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327	270	210	180	170
기타비유동부채	0	4	7	9	13
부채총계	1,191	1,421	1,627	1,825	2,194
자배주주지분	1,127	979	1,005	1,057	1,154
자본금	41	41	41	41	41
자본잉여금	1,181	1,187	1,187	1,187	1,187
자본조정 등	-5	0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18	120	204	204	204
이익잉여금	-208	-369	-427	-374	-277
자본총계	1,127	979	1,006	1,058	1,155

주요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F	2027F
P/E(배)	N/A	N/A	N/A	22.5	12.1
P/B(배)	5.0	1.4	2.1	1.1	1.0
P/S(배)	4.5	1.5	2.3	0.9	0.7
EV/EBITDA(배)	N/A	N/A	72.4	28.3	7.1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487	-1,916	-726	653	1,212
BPS(원)	13,806	12,249	12,570	13,224	14,436
SPS(원)	15,348	11,640	11,737	15,750	22,388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4.1	-14.7	-5.9	5.1	8.8
ROA	-1.6	-6.6	-2.3	1.9	3.1
ROIC	-3.9	-20.9	0.8	1.2	10.1
안정성(%)					
유동비율	114.8	93.4	92.3	93.9	98.1
부채비율	105.7	145.1	161.7	172.5	189.9
순차입금비율	48.6	82.8	75.9	59.6	42.4
이자보상배율	-1.1	-3.9	-0.0	0.2	2.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4	0.4	0.5	0.6
매출채권회전율	12.4	4.9	2.7	3.3	4.3
재고자산회전율	3.6	3.1	4.9	7.1	7.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하나기술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21	하나기술-수주잔고 회복 주목
2024.02.29	하나기술-미래 성장을 위한 인고의 터널을 지나는 중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회의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권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